

# 판매부터 A/S 맞춤 지원... 中企 판로 확대에 160억 투입

중기부, 판로사업 등 3250개사 지원  
 中企 전용 판매장, 올해 8곳으로 확대  
 내수·수출 판로개척 성장 발판 마련  
 온·오프라인 유통망 강화로 경쟁력 ↑  
 중진공, 올해 온라인수출 참여사 모집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 한해 총 3250개사에 대해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중기부가 올해 진행할 마케팅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400개사) ▲오프라인 판로지원(1200개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1200개사) ▲공동 A/S 지원(450개사) 등 4개 프로그램이며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관련 통합공고를 11일부터 실시하며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여성기업(1점), 경영혁신 마일리지(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온라인 판로지원’은 소기업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MD의 컨설팅을 제공하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고, 이커머스·홈쇼핑(TV, 데이터) 등 온라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비용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최대 20%까지다.

‘오프라인 판로지원’은 자부담없이 100% 국비지원이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해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입점과 판촉 활동을 돕는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 등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기회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제품만 입점할 수 있는 전용판매장을 운영해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전용판매장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목동 행복백화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삽인샵) 등에 설치해 6곳

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 2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전용판매장은 다른 유통망 대비 낮은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며 판매 인력 등도 지원한다. 최대 3개 매장에 걸쳐 5개 품목까지 중복입점이 가능하다. 공동 A/S 콜센터를 운영, 소비자와 제품에 대해 상담하고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결해 수리를 지원하는 ‘공동 A/S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 우수한 중소기업이 민간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판판대로’ 사이트 통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2025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중진공의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플

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B2B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50개사를 선발해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입점, 온라인마케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무역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기업간거래에서 온라인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올해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TOPS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TOPS 프로그램’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수행기관)이 직접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여기에는 총 10개 온라인 민간 플랫폼도 함께 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위기를 기회로’... K-철강, 美 시장공략·中 감산수혜 기대

쿼터제 폐지로 수출한계 사라져 긍정적  
 中 철강감산 발표... 약 5000만 전망  
 “하반기 안정세 예상, 실적개선 이룰 것”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초긴장 상태이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철강 감산과 대미 수출 쿼터 해제를 기대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가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방침을 못박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제를 수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 시장에서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팔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 기준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7%(2024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 철강 시장에서 수입 시장 비중이 약 3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관세 부과와 더불어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업계의 고민이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 당 70만~75만원으로 국산 후판 가격 90만~95만원 대비 25% 가량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들에서도 중국산 후판을 찾는 곳이 늘어나 국내 수입량은 지

난 2021년 45만톤에서 지난해 138만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철강 제품 수요는 감소해 철강사 실적은 악화됐다.

철강업계에 들이닥친 ‘이중고’로 우려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철강업계는 ‘기회’라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2월 초)한 후 미국 철강 가격은 급등해 미국 열연코일 가격은 지난 1월 말 톤당 650달러에서 현재 850달러로 31% 상승했다. 관세 부과를 예상한 미국 철강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올린 것이다.

미국 철강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쿼터제 폐지로 수출할 수 있는 한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또한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철강 생산량을 감축해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구체적인 감산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5000만t의 감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생산량(6350만t)의 80%, 중국의 연간 수출량(1억1106만t)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산 저가물량 공세에 골머리를 앓던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국 상하이 월드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6~7일(현지시간) 열린 ‘월드 브레이크벌크 엑스포(WBX) 2025’에서 현대글로벌비스 홍보 부스에 참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 현대글로벌비스

####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표 최대 중량화물 전시회 ‘WBX’ 참가

현대글로벌비스가 아시아 최대 브레이크벌크 전시회에서 글로벌 화주를 대상으로 영업력을 강화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6일 중국 상하이 월드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1박2일간 열린 ‘월드 브레이크벌크 엑스포(WBX) 2025’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WBX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중량화물(브레이크벌크) 관련 국제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150개 업체, 전문가 및 종사자 80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및 중국 현지 화주사를 대상으로 100척 이상의 자동차선과 벌크선을 활용한 해운사업 역량과 프로젝트 물류사업 현황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글로벌비스는 자동차선 98척, 벌크선 21척을 운영하고 있다. 중장비, 발전설비 등 화물크기가 매우 크고 일정하지 않은 브레이크벌크의 특성을 고려해 두 가지 선형을 운용하고 있어 다양한 벌크 화물의 맞춤형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중대 간(E2E) 물류설루션도 핵심 역량으로 적극 알렸다.

/양성문 기자 ysw@

## 제약바이오 벤처 ‘AI·양자컴’ 생태계 조성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연세대 국제캠퍼스서 간담회  
 “국가 바이오 생태계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약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위해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활용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10일 오후 인천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들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열린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후속 조치로 열렸다.

전문가들은 AI와 양자컴퓨터는 신

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AI신약개발 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활성화, 인천의 제약기업과 벤처기업의 협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 기회요인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일본 등 글

로벌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천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 직후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된 양자컴퓨터 센터를 방문하여 연세대의 양자컴퓨터 활용계획을 청취하고 벤처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바이오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선 AI와 양자컴퓨터 활용은 새로운 기회로, 지역의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국가 전체의 바이오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다”면서 “K바이오랩허브를 이곳 송도에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신약개발에 특화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